

국내 CATV 관련기술 개발 1위 목표



하 용 일

(주) 진성전자 사장

「가장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Business Unit라는 개념을 도입해 상의하달식 경영에서 과감히 탈피, 수평적인 조직 운영 방법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11-6에 자리잡고 있는 (주) 진성전자 하용일 대표이사는 자사의 경영을 이렇게 말한다.

진성전자는 '92년 창업 이래 전 종업원으로 하여금 능률적이며 적극적인 기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신념으로 채널 증폭기, 위성방송 증폭기, 광대역 증폭기, 채널 신호처리기, 영상 음성 변조기, 채널 혼합기, 연장 증폭기

회사개요

설립일 : 1992년 3월 30일
대표이사 : 하 용 일
본사 : 대구 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011-6
전화번호 : 053)767-0151
매출액 : 3억 5,000만원
자본금 : 1억 5,000만원

등 CATV 관련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다.

하용일 사장은 "우리 회사는 평생직장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끈기있고 성실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많이 보아 왔으며, 조직에는 사람이 일을 함으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과 회사의 조직력이 조화를 이룰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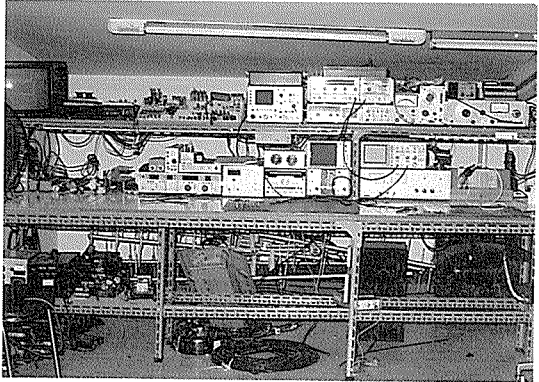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Business Unit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직적으로 상의 하달식의 운영에서 과감히 탈피, 수평적인 조직운영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진성전자는 기술개발실, 관리, 영업, 제품생산 등 4개 분야로 부서마다 부서장을 두어 맡은 일에 충실하고 부서간의 협조체제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조사에서 개발, 생산, 판매까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케 함은 물론 영업과 A/S에도 깊은



◀ 진성전자 회사전경

▼ 제품 개발의 산실 기술개발실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진성전자는 미국, 알리바마주, 한스빌에 직원이 상주하며 세계 각국의 신제품 및 신기술 정보를 입수하여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그만큼 기술정보 수집에도 남다르게 열정적이다. 이를 통해 수시로 기술자문과 신기술 전수 교육도 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진성전자는 Hybrid Monolithic System 도입으로 타사의 유사 제품과 비교해 볼때 부품 수가 50%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최상의 품질을 유지토록 기술 개발실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부품 수가 적으므로 원자재관리의 용이, 조립 단계 축소, 부피의 최소화 등으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되는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진성전자는 CATV관련 기자재 이외에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위성통신 수신용 채널배열 변화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의 방송사 및 대기업의 위성통신 이용계획에 맞추어 동제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도 이미 도전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이를 조기 국산화 하여 난청이 해소되는 민간통신 위성을 이용한 TV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국내 CATV 관련 기술과 통신위성, 방송, 수신, 관련기술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제품은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에 적절한 품목으로 생각되어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밝힌다.

하용일 사장은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목표로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술개발에 따른 각종 자금을 관계기관으로 부터 배정은 받았으나 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사업추진과 기술개발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음으로 보다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정책 당국에 요망 하기도 했다.

또한, 각종 인허가시 규제 사항을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 완화되어야 기업이 더욱 활기찬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 지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